

“생활정부 원년...마을 중심 주민자치 실현하겠다”

2023 세에 설계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18개 동 정체성 살려 BI 부여
 거점동-연계동 네트워크 구축
 행정동 역할 강화·주민참여 확대
 소통테마길·활력지원센터 신설
 ‘복지1번지’ 스마트케어모델 구축

매력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었다”며 “구청장에게 문자로 건의사항을 직접 전하는 ‘바로 문자하랑께’는 5개월 동안 1,000여 건의 문자 민원을 접수·처리해 주민과의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했다. 가족, 이웃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주민들의 간절한 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조하는 김 청장은 올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 주민참여 확대,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행정동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마을 중심의 주민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서구청이 행정의 컨트롤타워였다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정책을 실행하는 단위였기 때문에 수직적 소통구조로 인한 탁상행정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구는 행정동이 ‘마을청’의 역할을 하는 내용의 ‘생활정부 서구’를 선포했다.

그 일환으로 18개 동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려 BI(브랜드이미지)를 부여하고 향후 스토리텔링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관행과 습관으로부터 벗어난 발상의 전환으로 생활정부 원년을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2023년을 ‘생활정부 원년’으로 선포하고 온전한 주민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새해 청사진을 밝혔다.

김 청장은 4일 “‘함께서구 우뚝서구’를 구정 목표로 삼고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 지난 6개월은 마을과 골목에서 서구의 정체성과 가치,



을 통해 마을 사업, 의제실현사업 등을 추진하고 4개의 거점동과 인근 연계동을 지정해 수평적인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행정동의 역할을 강화한다.

서구는 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별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아 낸 소통테마길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를 돕는 소상공인 윈스톱 활력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

이다.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속 제공한 서구는 최근 지역복지평가 4관왕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복지1번지’ 이자 통합복지 선도지역으로 손꼽혔다. 서구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고품질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서구만의 독자적인 스마트케어 선도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팀 신설, 동별 맞춤형 온실가스 로드맵 구축, 지역 특색을 살린 맨발걷기 산책로 ‘맨발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29만 서구민의 행복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를 포용하는 촘촘하고 빈틈 없는 행정에서 시작된다. 공무원들이 즐겁고 신나게 일하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행정서비스 질 향상, 주민 편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행정·경제·복지·문화 분야에서 행정동이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온전한 마을 중심의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나눔후원금 전달 광주시 서구는 최근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김상훈씨로부터 나눔 후원금 350만원을 전달받았다. /서구 제공

제1호 ‘MVP 공무원’ 강미숙 수납팀장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적극행정

광주시 서구는 제1호 ‘MVP공무원’으로 강미숙 세무2과 수납팀장(사진)이 선발됐다고 4일 밝혔다.

강미숙 팀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와 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조례 제정과 답례품 확정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또 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고지정 규칙을 통한 협력사업비를 확보해 구 재정 확충에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구는 구정 주요 현안·역점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유공공무원을 우대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MVP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MVP공무원은 국·소장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의 공적 및 평판조사를 실시한 후 선발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창의성 및 혁신성, 성과도, 난이도 및 기여도, 과제중요도, 봉사도 및 청렴 실천 노력도 등을 종합평가해 선발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능동적이고 창의



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구는 2개월에 한번씩 개인MVP를 선발하고, 매년 12월 기 선발된 6명 중 1명을 ‘올해의 MVP’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6월과 12월에는 MVP팀도 선발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MVP공무원 제도를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겠다”며 “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2022년 우수·모범공무원 6명 시상

광주시 서구는 2022년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을 선발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공무원은 김민숙 회계정보과 계약팀장, 신진 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장, 서육주 의회사무국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등 3명이 선발됐으며, 모범공무원은 박용금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돌봄정책팀장, 조은숙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 문은아 감염병관리과 주무관 등 3명이 선발됐다.

서구는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품질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최근 지역복지사업 평가 4관왕 수상 쾌거도 이뤘다. 또 광주 유일 지방물가안정관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규제혁신 광주시 평가 3년 연속 1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7년 연속 우수사례 최다 선정, 탄소포인트제 운영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정,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등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혜린 기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하세요

내일까지...44개 사업 94명

광주시 서구는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4일 서구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서구는 올해 상반기 공공서비스 업무 지원, 자원재생 및 환경정비 등 총 44개 사업에 대해 94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 세대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서구 주민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선발된 주민은 일 4시간 근무 기준 월 11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4대 보험 혜택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1층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구청 일자리정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접 일자리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G 골드클래스(주)
G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